

# 외국인, 원화 약세에도 '사자' 당분간 국내증시 상승 이끌듯

펀더멘탈 변화, 외국인 패턴 변화  
당분간 원화변동성 크지 않을 것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매수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증시 펀더멘탈의 긍정적 측면과 미국 금리기조, 환율 상황 등에 비춰 매수세가 당분간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인 지난해 7월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20조400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3월 중순까지는 코스피 실적, 밸류에이션 추이와 지수 레벨, 환율 변화에 따라 대량 매수 이후 일부는 차익실현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올해 2월 초 이후 원화가 달러 대비 일방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도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특히 3월 중순에는 달러에 비해 원화 약세 강도가 2020년 이후 고점에 근접했다. 지난 3월 22일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회복하고, 1340원선까지 상승했음에도 외국인인 5조33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탈(기초여건) 변화에 근거한 외국인



코스피가 전 거래일(2557.08)보다 10.47포인트(0.41%) 상승한 2567.55에 장을 마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매매패턴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순이익, 주당순이익(EPS)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를 기점으로 저점에서 벗어나 각각 8.8%, 9.4%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적 전망치 개선이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부담 완화와 실적 개선 강도 회복으로 이어졌고, 원화 약세가 진정되고 강세 압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당분간 원화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중국의 위안화 가치 방어,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탈 등으로 인해 원화 변동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이라며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향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원화 약세 압력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증시의 주도권은 외국인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23개월 만에 상승전전한데 이어 선행 EPS, 순이익의 상승세, 이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7~8월 여름 랠리에 대비해 코스피 기초여건 변화를 주도하고 외국인이 매수에 나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권수영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왼쪽)과 임성환 BSI코리아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L이앤씨

## DL이앤씨, 빌딩정보모델링 국제표준 획득

영국표준협회 제정 'ISO 19650'

DL이앤씨가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빌딩정보모델링(BIM)분야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19650은 영국표준협회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수행주체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BIM 정보관리와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내부 지침 및 프로세스, 임직원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BIM은 3D모델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설계, 시공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데

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L이앤씨는 원도급자로서 ISO 19650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적 수준의 BIM 정보관리, 표준화된 기술과 품질, 전문기술조직 등에 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현재 DL이앤씨는 현장과 본사는 물론 발주처와 협력업체까지 모든 관계자가 함께 BIM을 활용하기 위한 공통 데이터 환경(CDE)을 구축해 적용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BIM 통합플랫폼을 개발하고 확장해 디지털 트윈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BIM을 비롯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중요시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DL이앤씨가 보유한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KB·하나證 '돌려막기식 불법자전거래' 의혹

금감원, 감사 착수

KB증권, 안전자산 투자 상품에 장기채 편입 방식으로 '불법영업'

작년 부동산PF 사태 때 채권폭락 다수 자전거래행위 추측 제기도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KB증권이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에 장기채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하나증권과 '불법자전거래'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KB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채권형 신탁 상품을 통해 받은 자금을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 자산 운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랩어

카운트와 채권형 신탁은 여윌돈을 단기로 굴리고 싶은 법인 고객 자금을 증권사가 맡아 운용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KB증권이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안내한 법인 고객 자금을 만기 1~3년물 여신전문금융채에 투자한 의혹과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의혹도 감사대상이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시중금리가 치솟으면서 랩어카운트와 신탁상품에 받은 법인 고객 자금으로 투자했던 장기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평가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불법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유동성 경색 당시 특정금전신탁 편입자산 중 장기채 가격 폭락에 타사 개설 KB계좌로 해당 장기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손실 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을 고유자산으로 메웠지만 엄연한 불법 자전거래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원관희 기자

## 美 국채 3배 추종 '디렉시온' 728억 투자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반도체·기술주 하락 배팅  
순매수 2·3위도 3배 역추종 ETF 차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3배 추종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과감한 투자 태도를 유지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기술주는 하락장에 배팅하면서 의외의 움직임을 보였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주(5월 15일~5월 22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3X'로 728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해당 종목은 장기국채로서 서학개미들에게 꾸준히 선택받아왔다. 7위에 이름을 올린 'TLT(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ETF'도 2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미국채 무부 장기채권이다.

이어 2·3위도 3배 역추종 ETF가 나란히 차지했다. 2위였던 'SOXS(DIR EXIONDAILYSEMICONDUCTOR BEAR 3X) ETF'는 ICE반도체 지수 수익률을 3배 역추종하며 630억 원 가량을 사들였다. 3위 역시 'SQQQ(PROSHARES ULTRAPRO SHORT QQQ) ETF'로 나스닥지수를 반대로 3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나스닥지수가 떨어질 때 3배 수익을 얻게 되며, 반대로 오를 경우 3배 손실을 입게 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 KRX, 종목코드에 알파벳 혼용 '중복 방지'

내년부터 체계 개편

한국거래소는 주권 등의 종목코드 중복 방지와 발급여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종목코드(표준·단축코드) 체계를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국내 금융상품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번호로서 12자리의 표준코드와 이를 축약한 단축코드

를 발급해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용자가 거래 종목의 단축코드를 자체적으로 생략해 사용함에 따라 상장지수증권(ETN) 단축코드와 주권 단축코드 간 중복이 발생할 우려와 코드 발급여력이 향후 2~3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권과 ETN의 코드값 사용영역을 분리해 중복을 방지하고, 숫자만 사용하고 있는 일부 코드 자리에 알파벳을 혼용해 발급여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권과 ETN 단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사용하는 코드값을 구분해 주권은 0~4를, ETN은 5~8을 사용하도록 분리한다. 현재는 주권의 단축코드 2번째에 0~9를, ETN에는 5~9를 사용하면서 겹칠 우려가 존재한다.

/신하은 기자